

사설

경주 남산과 봉정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인 줄도 알면서도 행동을 한다면 이는 몰라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르는 것 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

첫째는 경주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즈음에 느껴지는 부끄러움이다. 지난 6월 29일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유산 위원회가 경주남산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본회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다. 우리가 소원했던 문화유산 등재인데 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가 문제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아니다.

둘째는 경주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즈음에 느껴지는 부끄러움이다. 지난 6월 29일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유산 위원회가 경주남산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본회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다. 우리가 소원했던 문화유산 등재인데 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가 문제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명백하다. 문화유산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문화유산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나 보존 관리하는 행태의 수준이 부끄럽다는 뜻이다. 경주 남산을 둘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선 사설분묘들, 걸맞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들, 훼손된 유적들, 놀이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 등이 다 지적하기가 힘들다. 문화유산

사형제 폐지 생명운동

인간이 무슨 명목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미물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라면 동류인 인간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도라는, '보라 깨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살인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한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우리는 그 근원적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 법에 의한 살인은 과연 살인이 아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법에 의해 인정하고서, 그것을 통해 살인을 비롯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살인을 비롯한 죄를 막고 또 징계하기 위하여 살인이라는 방편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가? 방편이라는 것이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와 원불교 교단 등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불교가 그 진면목을 발휘할 분야에 제대로 발을 내밀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좀 뒤늦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에 바탕한다면,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불교가 이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생명의 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어두운 그늘이 없는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일이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 주장이 부정적 측면의 제거라면 그를 발발점하는 적극적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에 불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계기로 이러한 두 측면의 사회운동이 불교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독자의 소리

신문 홈페이지 독자란 기독교인 선교 '몸살'

지난 주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서의 일이다. 독자 의견란을 살펴보니 수심간의 의견이 올라 와 있었다. 주면이어서인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교 목적의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불교를 은연중 또는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글들도 있었다.

독자 의견란은 누구나 공유하고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런 곳에 선교를 목적으로 한 글로 도배질하고 그러다 못해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음해하는 글을 올린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해법 방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인숙인줄 아느냐" 봉정암 기도비 강요

지난 6월 봉정암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도를 접수시키기 위해 그곳 보살님에게 3만원을 드렸다. 그런데 그 보살 알(曰) '이것도 돈이냐'면서 접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기도하는데 돈을 얼마 내야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보살은 못마땅한 듯 2호실 방을 배정해 주었다.

봉정암 보살의 불손한 태도는 나에게 뿐만이 아니었다. 기도비로 1만 원씩을 낸 두명의 보살님과 처사 한 분에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들어냈는데 자못 나를 분노케 했다.

그분들에게 그 보살은 '여기가 무슨 여인숙인 줄 아느냐 한 사람당 만원이 뭐냐'고 소리치는 것이다. 봉정암은 누구를 위한 절인가. 돈 없는 불자들은 절에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것인지 불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불교가 과연 타락하고 만 것인지 경악스럽다. 물론 한사

람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시켜 보는 안되었지만 씁쓸한 기분은 쉬 떨쳐 버릴 수 없다.

(<투데이스 닷 컴 ID:김혜선>)

너도나도 무질서하게 범당한 초·향 공양

우리 불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오랜 세월동안 잠재되어 왔을인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범회때마다 보고 느끼는 일이지만 참석하는 불자들 중 대다수가 내가 꼭 부처님 전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야만 내게 복이 온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 전에 이미 촛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처럼 그 촛불을 꺼 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초에 불을 붙여 촛대에 꽂고, 향을 부처님이 모셔진 상단, 신중단인 중단, 영단인 하단에 돌아다니면서 피운다. 그리고 불단 바로 밑에서 삼배를 올린다. 그렇다보니 향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리안: aum ·하이텔: 34713

안·타·까·음

사주관상가로 전략한 스님

"O 스님, 서울과 일본에서 기적을 보여준 O 스님! LA에 오셨다. 문화생 모집, 운명감정, 사주팔자, 이름상호, 수상관상, 예약 상담 -O O월 학미대연구원"

지난달 1일 LA교차로 광고지에 실린 광고다. 이 광고는 한 가운데에 참선하고 계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어 낯을 뜨겁게 한다. 사주 관상쟁이로 전략해 버린 스님이라는 이름 아래 초라한 부처님의 모습,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부처님은 "수행자는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제자는 아르바베다의 주문이나, 해몽, 관상, 점술, 점치는 안된다(수타니파타)"고 말씀하셨다. 오직 바른 생각, 바른 행위, 바른 생활태도를 가르치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부 스님들의 일지만 스님들은 사주 관상쟁이를 자처하고 나선다. 그리고는 그럴 듯하게 변명을 한다. "중생이 원하는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편인데..."라고, 또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 즉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혹한 중생이 원한다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일까? 성철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스님은 "중이 밥 못 먹을까봐 걱정 하는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오히려 넘칠 정도로 스님들을 봉양하지 않는가.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를 팔아 돈을 벌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스님의 본분이 아니다"고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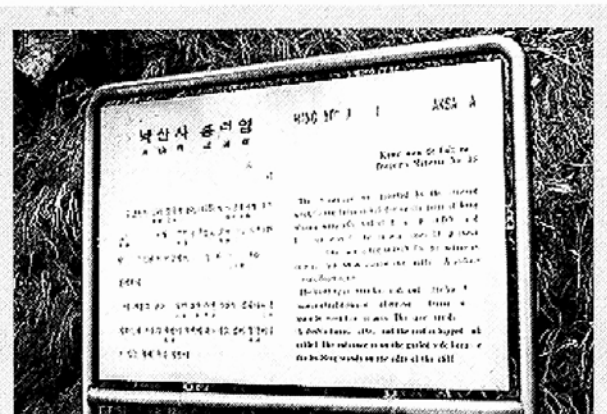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승가교육이 급선무다. 몇 십년 전 서당식 강연 교육을 고수하는 지금의 승가대학의 교육으로는 훌륭한 포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이 필요하다. 알아야만 정을 한다고, 배운 것,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포교를 효과적으로 하겠는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많은 전도사를 양성해 전세계에 파견하고 있다. 옛날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왔지만 지금은 반대로 열기가 식은 서구 기독교를 대신해 한국 기독교가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스님들이(일부지만) 본연의 자질을 망각하고 직업적인 사주관상가가 되어 돈벌이 광고나 내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해공법사(미국 샌디에고)



마치 폐사지처럼... 사람 입구엔 그 사람의 유래와 규모를 설명해 놓은 사찰 안내판이 있다. 그러나 글씨가 반쯤 떨어져 문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산사 홍련암의 안내판은 없느니라 못하다. 나도 그랬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많은 참배객들은 사찰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찰안내판을 먼저 대하고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창식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각)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위원당 하고 있다. 96년 학부로 전환하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불교대의 발전 방안이 책상서랍에 방치되고 있는 것.

그 동안 '전과' '편입학소' 등으로 불교학부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학부 강좌가 폐강되는 등의 불교대 현안에 대해 교계는, '재단의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3월 2일 동국대 자체적으로 구성된 발전위의 활동에 관심을 집중했다.

불교대 소속 14명의 교수들이 3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만든 보고서에는 불교대를 '특성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 △전과제도 △교수확보 △취

목탁 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서랍속 불교대 발전보고서

업무제 등 불교대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마련 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발전위가 지난 5월 18일 연구보고서를 기획인사처에 전달했지만, 학교 당국은 지금까지도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작업이나 세부 계획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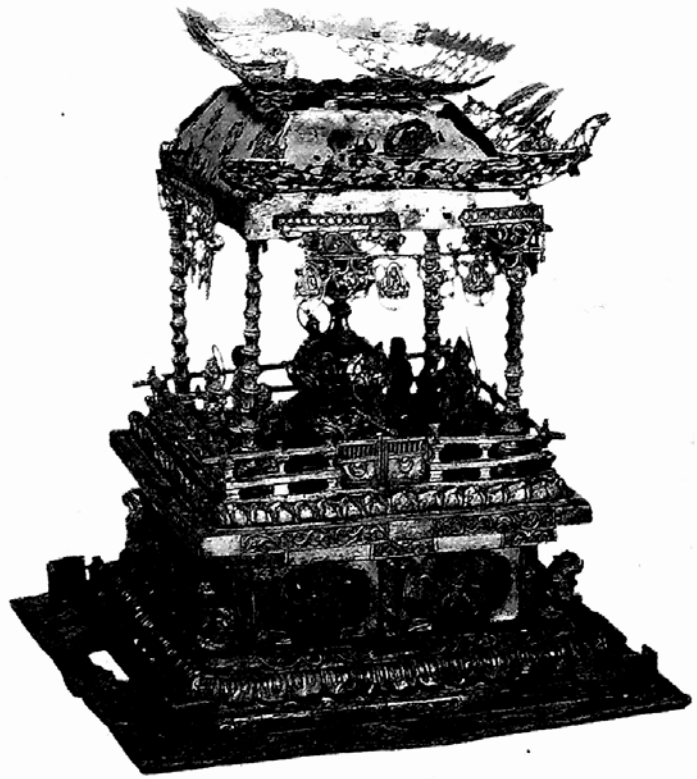
재단의 한 관계자는 "발전위가 재단이나 학교당국에 이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불교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

한 어떠한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위급한 시기에, 연구보고서를 대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현각 스님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제는 행정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불교대 교수들이 마련한 연구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해 위기에 처해 있는 불교대학을 살리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시간적 촉박함도 있는 만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작업을 계속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김은사 동상총서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김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장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5)384-0010, 팩스 055)384-0030 (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성인원, 인솔스님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